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나선다

전주시,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4억8000만원 확보

1000만 관광객이 전주시를 관광자원과 전문문화, 첨단기술이 결합된 증강현실(AR) 게임과 드론 예술 공연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에 드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예술공연인 '드론버스킹스'와 증강현실(AR)게임인 '레전드 오브 킹(가제)' 등 2개 과제가 선정돼 총 4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와 진흥원은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산업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오는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된다.

먼저, '킹스토리 기반의 증강현실(AR)게임', '레전드 오브 킹(가제)'은 게임전문기업인 (주)핀웨이브와 EBS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의 제작기업인 (유)올빼미하우스가 협력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1박 이상 전주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늘리고, 한옥마을에 밀집된 관광객을 주변 관광지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전주의 대표관광지들을 연계한 증강현실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기반 융합 예술공연, 드

론버스킹스'는 드론 군집비행 솔루션 기업인 (주)네온테크와 지역미디어 산업을 선도해온 미디어파사드 기업인 (주)써티데이즈가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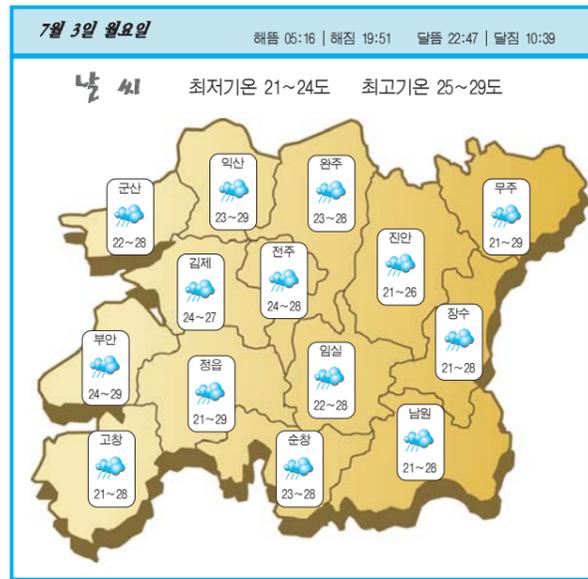
시는 드론산업과 탄소소재 응용기술, 지역의 문화예술이 융합된 전주만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 효과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문산정 진흥원장은 "전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날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중적인 취향에 부합할 있는 지역적 콘텐츠 소재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융합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의 전통·역사자산 등을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재용 기자



부안 여고생 성추행 학교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물의를 빚은 부안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 30일 전체 교직원이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과 무관한 교사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학교의 모습이다.

전북대 국제화사업단 해외봉사

전북대학교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송기도·이하 국제화사업단)과 창원대학교 CK-1 글로벌다문화사회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문경희·이하 다인사업단)은 공동으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하계 해외봉사단을 감보디아로 파견했다.

해외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 유발과 체험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저개발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이번 해외봉사에는 국제화 사업단 18명과 다인사업단 29명 등 총 47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감보디아 세렘발에 위치한 현지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봉사를 실시한다.

현지 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현지마을 섬외, 현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프놈펜왕립대학교 학생 9명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단원에게는 현지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왕복항공권, 현지체재경비 일체를 지원하며, 봉사활동 기간 중 현지 문화탐방의 기회도 제공한다.

송기도 전북대 국제화사업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단순 봉사의 의미를 넘어 전북대와 창원대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영·호남 대학생 교류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현지 NGO와 대학,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감보디아의 연대 의식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개최

오늘부터 6일까지... 국제사회 현안 해결방안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오늘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제23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를 개최한다.

유엔한국협회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여 전북대가 주관하는 모의유엔회의는 1995년 유엔 창설 50주년에 시작되어 22년 간 대한민국의 미래 창의인재를 육성하려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 모의국제회의의 행사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유엔총회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외교관처럼 각 위원회별로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 입장이 되어 다른 국가의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 의제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s) 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유엔의 역할'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유엔의 역할', '대량 난민·이주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등 4개 의제가 설정됐다.

본회의에서 의제를 채택한 후 이를 각 위원회별로 분배하여 유엔총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4개 위원회 가운데 1,2위원회는 영어로 진행된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개회식은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오준 전 유엔대사, 최석아 전 유엔사무총장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행사가 이어지고, 이튿날 저녁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환영 만찬도 진행된다.

또한 5일에는 윤 바커 현 유엔 사무국 인사실 국장이 국제기구 진출 설명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일부 참가가 개방되어, 8월 5~6일로 예정된 제2회 전라북도 모의유엔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지역 중·고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위원회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과 함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의 유엔회의의 참가 기회가 주어지고, 그 외 수상자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국제모의유엔회의의 한국 대표로 파견되는 부상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온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이번 회의 의제들이 유엔이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평화와 안전', '인권', '개발협력'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대학생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자국의 특수이익과 세계의 공통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정치외교학과 송기돈 교수는 "모의유엔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40개 대학의 학생뿐 아니라, 특히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지향하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도교육청, 재활용 물품 기부 받은 뒤 아프리카 지역 전달 해외 나눔 행사 추진

전북도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김승환 도 교육감이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발전도상국

가의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재활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재활용 물품을 기부 받은 뒤 아프리카 지역에 전달 할 계획이다.

기부 물품은 의류와 신발, 모자, 가방 등 4종으로 한정했으며, 어린이 용부터 성인용까지 모두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23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돼 전북이 세계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재활용품 기부를 통해 세계 잼버리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기부 실천을 통해 자녀들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